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모델¹⁾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유 명 의* · 서 리 나**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사**

A Model of System Reformation for Specialization in Home Economics
of Vocational High School in JellaNamdo

Yoo, Myung-lee* · Seo, Lee-Na**

*Dept. of Textiles & Clothing, Dongshin University **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opose a basic model of specialization in home economics for vocational high school development in JellaNamdo.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into service industry and national educational policy and local vocational educational policy, it may be good time to socially discuss special vocational high school in home economics in JellaNamdo in the light of meeting local students' demand. Secondly, considering local students' preference and the conditions of local economy and industry. Thirdly, the system for specialization in home economics of vocational high school may be suggested. The basic model was organized plans of system reformation by stages, a substantial plans, and academic or employment course development.

System reformation plans was that the high school-concentrated district should be first selected by area and department and one high school should be selected as special high school in home economics. Then specific method should proceed: school name, the measure to recruit students, specific method for reorganizing department, and curriculum. Finally, the annual plan to establish new department and to recruit students should be prepared. Substantial plans were to actually forward such methods to reorganize system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the method for making substantial should be studied further. It may include: the methods to ensure special teachers, training room, and facilities, the prospect and direction

1) 본 연구는 2001년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전라남도 실업계 고교 진흥방안 연구」보고서(2001)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임

of career development, employment, or initiation, special research, and the application to educational environment. Employment courses were developed SOHO establishment in small capital and special store management. And academic courses was to enter a collage or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major departments.

Key Words(주제어) : 실업계 고교(vocational high school), 가사계열(home economics), 특성화(specialization)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 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서 실업교육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미래사회에 충실히 기능하는 질 높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효율적인 운영 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실업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와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업계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업교육은 현실적으로 학생자원이 급감하고 사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으며 승문사상의 편견된 사회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실업교육의 진흥에 대한 다각적 연구는 시기적으로 절실하다.

전라남도도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실업교육 침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남 지역은 한반도 서남부를 대표하는 해양의 요충지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 지역개발에 집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인력과 직업군 개발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요구에 힘입어 전남지역의 실업교육은 기능인력을 배출하는데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실업교육의 질적 성장률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 환경의 변화와 지역적 특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체제개편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성화 고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의거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고교로써, 디자인,

자동차, 원예, 전자기계, 정보, 조리, 컴퓨터, 애니메이션, 관광, 인터넷, 피아노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소규모 학교가 여기에 포함된다(강성원·옥준필, 2000).

실업고교에 대한 특성화 체제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교육개혁안(1996)', 교육부(1999)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및 '실업계고교 육성대책(교육부 산업정책교육과, 2000)'에서 제시한 실업교육 진흥에 따른 체제개편 방안 등이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6년 2월)는 국민의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직업교육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 및 개편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개혁정책으로 언급하였다. 이후 특성화 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교육부(2000년 1월 3일 발표)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통하여 그 추진 방향이 한층 구체화되었고, 점차 운영체제의 개편과 운영내실화 방안, 그리고 행정 및 재정지원 분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실업교육발전위원회, 2001). 즉 특성화 고교의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체제개편은 운영체제 개편 분야와 밀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익현 등(2001)은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지원 연구를 통하여 기존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체제 개편의 방안을 제안하고 통합형 고교 운영 및 특성화 고교의 확대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교는 신설보다는 기존 실업계 고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적합성과 운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수업 연한 등 교육 내용에 따라 융통성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청(1998)은 전남교육발전계획(2차)에서 실업교육 기본방향을 21세기를 주도할 도덕적·창의적 직업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에 두고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육성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경쟁력 있는 '상업계열' 분야의 육성 방안의 경우 경영·정보분야로 특성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의상, 디자인, 미용, 유아교육, 요리 등의 분야는 여성인력을 특성화할 수 있는 가사계열 특성화에 대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고교로의 체제개편은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 사회의 산업 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 양성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계, 다양한 학교 운영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특성화 고교 육성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실업계 고교의 배치 등에 구체적인 목적을 두는 직업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된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에 대한 체제개편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현재 직면한 상업계열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재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에 적합한 여성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미흡하다는 평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전남 교육청은 정보분야의 특성화 추진과 함께 가사계열 특성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지만 체제개편의 실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성화 고교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 적용 논의는 활발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개편모델(안)의 기본적인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시대의 도래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인력 개발분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가사관련 직업군의 개발은 체계적인 실업교육 시스템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의 다양한 근거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통해서 특성화 체제개편의 추진 배경을 밝히고, 전국의 몇몇 가사·실업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체제개편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또한 특성화 고교에 따른 요구를 조사하여 지역의 체제개편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전남지역 소재의 실업계고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체제개편모델(안)이 제시될 것이다.

II.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수요에 대응하고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체제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모델(안)을 통하여 체제개편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추진 배경을 파악한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가사계열 특성화의 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 당위성과 산업 구조에 부응한 인력수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전국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가사·실업계 고교를 순수 설립고교와 전환 희망고교로 나누어 개교시기 및 전환시기를 비롯하여 학년별 학과의 구성 및 학급과 학생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비교하고, 특성화 고교 체제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학교측의 체제 발전 계획을 조사한다.

셋째, 전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한다. 요구 조사의 내용은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신설 및 전환에 관한 의견,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정보, 취득 자격증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체제개편 후 특성화 고교의 선택 여부, 개설 희망 학과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체제개편모델(안)을 제안한다. 전라남도의 산업 전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제개편안의 기본적인 추진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 방안과 진로개발 및 취업·창업 방안 등을 각각 설명한다.

III. 연구 방법

이상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로의 추진 배경은 관련 문헌 조사 및 관련 선행 연구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기존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한 체제 운영에 관한 비교 분석은 가사·실업계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국 10여 개교 중에서 5개교를 임의 선택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1년 4월에 현장 방문 인터뷰(3개교)와 전화 인터뷰(2개교)를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학교는 총 3개교로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와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영산포여자상업고등학교이다. 전화 인터뷰는 모두 2001년에 3월에 개교하여 아직 학교 운영이 초기 단계인 2개교(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와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로써 개교의 시기가 짧아 특성화 교육의 성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되기 미흡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하여 직접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전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요구 조사는 고교 진학을 앞둔 전남지역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배포된 500부의 설문지 중 분실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360명의 응답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360명 조사대상자 중 여학생은 209명이고 남학생은 151명을 차지한다.

넷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편 전환의 틀을 제안하기 위하여 특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전남 지역 소재의 실업계고교를 대상 학교로 삼고 체제개편 과정과 내실화 방안 및 진로개발 등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체제개편모델(안)을 설명하였다.

IV. 관련문헌 고찰

전라남도 교육청의 2001년 내부자료와 전남 실업교육 진흥에 관한 최근 수행된 연구보고서(최영표 외, 2001)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 고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가사직업군의 인력 수요를 전망해 봄으로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체제개편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전남 실업계 고교의 최근 현황

전남도내 실업계 고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과 명칭을 변경하거나 학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1996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학과명칭 변경 및 학급 수 감축은 상업계와 농업계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재학생 수도 전 계열에 걸쳐 최근 5년간 계속 감소 현상을 보이며, 실업계 고교의 미달 사태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학급감축 조치로 인하여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4학년도까지는 극심한 입학지원 감소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학지원 감소상황에 대응하여 입학정원의 감축과 아울러 학과 통합 등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전남교육청 내부자료, 2000).

전남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최근 3년 동안 취업률이 감소하는 경향(1999년 평균 61.1%, 2000년 61.4% 수준)을 보이고, 졸업자 대 상급학교 진학률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전남교육청 통계연보, 1996, 1997, 1999, 2000년). 최근 3년(1999년~2001년)의 진학률은 각각 32.8%, 33.8%, 40.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학 진학은 동일계열 특별전형 또는 2년제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운영 등에 기인하여 2001학년도에 실업계 고교 출신의 약 83%가 2년제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다.

2. 전남 실업교육 진흥연구의 동향

최근 전라남도 실업계 고교가 처해있는 다양한 교육적인 문제들-학생자원 측면과 실업계 고교 내부요인, 교원, 교육체제, 교육정책,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실업교육의 체제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생자원 측면에서 첫째, 입학지원이 격감하고 있어서 2001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108개 학급이 감소하였고, 입학지원 미달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전남 교육청 통계연보 2000). 둘째, 적성보다는 성적에 의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 셋째, 학습에 대한 열의 부족과 학습동기 결여,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중도 탈락자(일반계 고교의 약 3배)가 증가하고 있다(전남교육청 전남통계연보, 1998, 1999, 2000). 실업 고교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학교 입장에서 교육 성과 제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학생에게는 학습에 흥미를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여 실업교육을 어렵게 한다(직업능력개발원, 2000). 넷째, 학교 생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중간 이하)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

학생이 학교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의 큰 이유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취업보다는 진학을 우선시하고 경향이다.

실업계 고교 내부 문제를 보면 첫째,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과과정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둘째,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2 체제의 연계 교육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 정보가 부족하고 학생 개인의 적성과 선호가 충분히 반영된 자발적인 진학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직업교육의 축이 실업계 고교에서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취업 또는 진학여부에 대한 충분한 진로지도와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와 현장의 교육적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산학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있으며, 여섯째,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을 위한 양질의 실험 및 실습 여건이 부족하다. 일곱째, 학력인플레이션의 심화와 고학력자의 선호로 고교 졸업 후 취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최영표 외, 2001).

중등 실업계 교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이론 위주의 교원 양성교육과 실업계 고교의 통·폐합으로 발생한 과원 교사들의 부진공 연수의 부실로 인하여 교사들의 전문교과 실기능력이 미흡하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첨단산업 관련 교과목이나 특성화 관련 학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 현장 및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이나 실업교육의 불투명한 전망, 그리고 과도한 정보화 능력 요구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최영표 외, 2001).

교육체제의 경우는 먼저, 직업 적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줄 수 있는 상급의 직업교육기관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여 장기적인 실업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일관성 있는 실업교육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최근 10년간 실업계 고교 19개교가 신설되었지만 5개교의 실업계 고교가 폐교되고 13개교가 교명 변경을 하는 등의 혼란함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정책상의 문제로 실업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교육정책과 정책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최영표 외, 2001).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의식 조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학생 및 교사들은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둘째,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단체(전남도 실업교육진흥협의회)가 유명무실하여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농어촌사회는 더욱 폐쇄되고 농업에 기반을 둔 전남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남도내 학생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학교 통폐합을 압박하여 결국 실업계 고교 교육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능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이 청소년기 실업교육 진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영표 외, 2001).

3. 전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인력 수요 전망

장기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망(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에 따르면 직업구조는 문화관광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3차 산업의 비중은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서비스 중심의 경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직업별 노동력 수요가 변화하여 전문직 중심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 개발은 미래 노동력 수요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이 될 것이다.

21세기 직업구조와 취업자 변화추이를 통해 전망된 가사계열 실업 고교의 유망한 학과는 조리과, 미용과, 자수과, 의상과, 유아교육과, 노인복지·간호과, 사회사업과, 레크레이션과, 여가문화과, 도예과, 외식산업과, 건강식품과, 피부미용과, 약용식품 등이다(진미석, 1999). 이런 학과들을 대부분 '서비스(관련)직군'에 속하고 있어 가사계열에서 유망한 학과는 결국 서비스산업 중심의 현대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관련)직군에 속하는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건강 및 보건·복지산업, 교육·훈련, 오락·정보서비스, 개인관련 서비스, 교통관련 생활서비스 등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가정 기능이 사회 서비스로 이전되거나 대체되어가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은 가정생활의 다양한 부양, 양육 및 교육활동의 많은 영역을 사회의 서비스(관련)직업군을

〈표 1〉 전라남도 권역별/계열별 특성화 분야

권역	해당시군	산업현황 및 성장축	지역적 특성	각 계열별 특성화 분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가사
동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여수산단, 광양제철, 광양컨테이너항, 해양엑스포 준비	동부산업축 형성, 동부생활권 형성	생물의약, 식물자원	기계/화학, 자동차,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해운항만	관광요리, 관광호텔, 남도문화관광
서부	목포, 무안, 영암, 진도, 함평, 신안	대불산단, 삼호조선, 목포신외항, 무안신도청/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서부산업축 형성, 서부생활권 형성	환경농업, 농업관련상품	전기전자, 정밀기계, 조선	사이버정보	자영수산	관광골프, 남도문화관광
남부	해남, 강진, 완도, 장흥, 보성, 고흥	남해안관광벨트개발, 고흥우주센터 건설	광주대도시권의 중간위치	식량자원, 특용작물	우주산업, 신소재	전통산업과 경영정보, 사이버정보와 연계	자영수산, 관광해양레포츠	관광요리, 남도문화관광
북부	장성, 담양, 곡성, 영광	장성화물터미널 (물류기지), 영광원전	광주대도시권 영향 (일부 베드타운)	관광농업	광전자 정보기기	전자상거래, 통유	-	미용, 조리, 남도문화관광
중부	나주, 화순	광주의 광산업 및 산업단지, 근교농업	광주대도시권 영향(베드타운)	바이오식품, 관광원에	자동차부품, 전산금형설계	-	-	미용, 조리, 남도문화관광

자료 출처: 최영표 외(2001). 전라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 연구.

통하여 지지·보충·대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계열 실업교육은 21세기 유망한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 및 국가의 개별 가정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국가의 균형발전전략에 따라 특화된 전남지역의 생물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그리고 인근 대도시(광주)의 광산업과 디자인 산업은 현재 지역의 중점성장산업이며 동시에 미래발전산업으로서 기능인력의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산업구조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직종 및 직군 간의 구성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단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특성화, 즉 체제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라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 연구(최영표 외, 2001)에서 전남 지역에 산재된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와 향후 개편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각 권역별로 소속 행정구역과 해당 권역내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시설이나 성장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계열별 특성화 분야를 제안하고 있다(표 1 참조).

산업환경의 변화와 권역별 인력수요의 필요성에 비

추어 볼 때 아직 전남지역에는 가사계열 고등학교가 없지만,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미래의 여성 기능인력 수요 중 일부를 가사계열고교에서 전담하는 방안은 시기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남 지역에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학교 1개교를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로 체제개편하는 것은 여성자원의 기능인력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기반이 약한 전남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지리적으로 대도시권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의 문화관광산업 개발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지역적·국가적인 사업육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기능인력 양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리, 의상, 미용, 육아교육 등의 영역이 가정으로부터 이양되면서 이미 각광받는 여성관련 직업군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관광산업의 첨병인 전라남도의 멋과 맛을 가사계열에서 전담하여 육성해야 하는 적절한 필요성기도 맞물린다. 따라서 특성화된 가사·실업교육과 함께 문화관광분야와의 적용 및 연계 육성은 지역의 전략산업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양성이라는 실업교육의 실천을 통하여 지역의 사회적·경

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V. 연구결과

1.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의 실태 비교

교육법 제 8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11조 ③항은 가사·실업계 학과의 전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현재 가사·실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전국 약 10여 개교로 본 연구는 '순수'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와 가사계열 특성화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순수' 가사·실업계 고교는 가사계열로 특성화시켜 개교한 학교를 의미하며 1995년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로부터 출발한다.²⁾ 한편 가사계열 특성화 '전환'희망 고교는 가사·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현재 학과를 신설 또는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을 향후 추진하기를 적극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³⁾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체제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총 5개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1995년 개교한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2001년에 이르러 '순수' 가사·실업계 고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상업계열에 속한 여자실업계 고교가 가사·실업계 고교로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순수' 특성화 고교에 해당하는 세 학교 모두 '생활과학고등학교'의 명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가정학과(또는 가정학 관련 학부)가 '생활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와 유사하다. 한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를 희망하며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남원과 영산포의 2개교는 초기 상업계열에서 가사계열로 특화하는 체제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개교의 전공 영역을 비교해 보면 의상과, 조리과, 미용과(또는 피부미용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공 영역은 개인 및 가족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중심의 분야이면서 대학 및 대학교에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

치되어 있는 분야로써 기능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취업이나 대학 진학과 같은 진로지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공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 수는 전공학과 당 약 1~2개 학급을 유지하지만, 인천의 2개학과는 각각 3학급으로, 울산의 특성화고교는 관광과가 4학급이고 다른 전공 학과는 2개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인터뷰 결과 5개교 모두 획일적인 학급 수를 유지하기보다는 학년별, 학과별, 시기별로 유연하게 학급 수를 조정하는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 있었다. 2001년 현재 1학년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하면 30명(경북)에서부터 39명(영산포), 40명(남원), 45명(울산)에 이르는데, 인천 고교의 경우 학급당 72명인 경우도 있었다.

가사계열 특성화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5개교 모두 가사계열 특성화의 체제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전공 및 실습 중심의 수업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신감, 취업에 대한 밝은 전망, 2년제 대학과의 연계성, 가족 및 지역 내 다른 학교나 학생들로부터의 호의적 평판 등이 그것이다. 일반 실업계 고교의 진학률이 낮거나 부정적인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가사·특성화 고교에 대한 사회 일반 및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 결과는 특성화로의 체제개편 방안을 낙후되어 가는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각 학교의 향후 계획을 살펴본 결과 '순수' 특성화 고교들은 효과적인 특성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울산생활과학고교의 경우 수준별 학습 지도나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체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경북과 인천의 생활과학 고교는 현 체제의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과 학생들의 선호 분석에 의거한 학급 수 조정 등과 같은 특성화 체제의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결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남원과 영산포 실업고교는 가사계열 특성화로의 단계적인 체제개편 자체가 우선 목표로 계획되어 안정화된 체제 개편의

2) 2001년 6월 현재 경기도평택조리과학고등학교, 경기도한국관광고등학교, 제주표선상업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등이 '순수' 가사·실업계 고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2001년 6월 현재 가사계열 특성화 '전환'을 추진중인 실업계 학교는 부산한독여자실업고등학교,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영산포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이다.

〈표 2〉 가사·실업계 고교의 특성(2001년 6월 현재)

학교명	울산생활과학 고등학교	경북생활과학 고등학교	인천생활과학 고등학교	남원여자정보 고등학교	영산포여자상업 고등학교
개교시기	1995년	2001년	2001년		
전환시기				2001년	2001년
전공영역	1/2/3년 5과	1년 3과	1년 2과	총 4학과 중 가사계열 1년 1과	총 3학과 중 가사계열 1년 1과
	· 의상과 · 조리과 · 실내디자인과 · 유아교육과 · 관광과	· 의상과 · 조리과 · 피부미용과	〈1년 탐색과정〉 · 의상과 · 토탈조리과 〈2년 심화과정〉예정 · 의상예술과 · 조리과 · 토탈미용과	〈1학년 가사계열전환〉 · 미용과 추가 〈1-3년〉상업계열 · 유통과 · 사무자동화과 · 정보처리과	〈1학년 가사계열전환〉 · 피부미용과 추가 〈1-3년〉상업계열 · 상업디자인과 · 정보처리과
학급수 (가사계열 학급수)	학년당 12학급	1학년 3학급	1학년 6학급	1학년 2학급 추가	1학년 1학급 추가
	· 의상과(2) · 조리과(2) · 실내디자인과(2) · 유아교육과(2) · 관광과(4)	· 의상과(1) · 조리과(1) · 피부미용과(1)	· 의상과(3) · 토탈조리과(3)	· 미용과(2학급)	· 미용과(1학급)
학생수	총 1,602명	총 90명	총 433명	40명(가사계열) /총 384명	39명(가사계열) /총 332명
	· 1학년 540명 · 2학년 517명 · 3학년 545명	· 1학년 90명	· 1학년 433명	· 1학년 160명 (미용과 40명 포함) · 2학년 136명 · 3학년 88명	· 1학년 107명 (피부미용과 39명 포함) · 2학년 99명 · 3학년 141명
학생반응	· 취경중취득응이 · 학교평가 · 실습·작품전시	· 전공수업중심 교육	· 활기찬분위기 · 의상과/미용과 선호	· 미용과 호의적 반응 · 2년제대학과의 연계 진학응이	· 취업우선고려
향후계획	· 수준별 학습지도 · 공동체의식함양	· 현 체제 유지 후 성과 분석 예정	· 학생선호분석 후 학급수 조정	· 미용과 지속개설 · 기타 가사계열학과 신설/단계적 전환	· 전남의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 완전 전환 희망
구 분	순수 설립고교	순수 설립고교	순수 설립고교	전환 희망 고교	전환 희망 고교

추진이 일차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요구 분석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체제를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존의 실업계 고교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특성화 체제에 대한 재학생의 호의적인 반응과 함께 학교측의 체제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가사계열 실업계교육에 있어 특성화 체제가 전혀 없고 실업계교육 진흥 및 내실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은 검

토할만한 대안 중한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 전남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요구가 정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잠재 진학 예정자(중학생)를 대상으로 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의견과 요구는 지역에서 체제개편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데, 즉 요구 분석은 전망있는 학과 및 전공의 구성이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지역수요에 따른 적합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수법 개발, 취득가능한 자격증의 범위 지정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진로지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예비 고교 진학 대상자의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 대한 요구 조사의 결과이다.

〈표 3〉 가사·실업계 고교에 대한 요구 실태(2001년 5월)

문항내용		전체(N = 360)						
		전체(n=360)		여(n=209)		남(n=151)		
		빈도	%	빈도	%	빈도	%	
1. 중학교 졸업 후, 진학 예정 고교	전남지역 인문계	242	67.22	133	36.94	109	30.28	
	전남지역 실업계	104	28.89	67	18.61	37	10.28	
	기타	13	3.61	9	2.50	4	1.11	
2. 가사계열 실업계 고교 신설/전환에 관한 의견	찬성한다	335	93.06	206	57.22	129	35.83	
	찬성하지 않는다	24	6.67	3	0.83	21	5.83	
3. 가사계열 실업계고교의 취득 자격증에 정보	조주사	18	5.06	5	1.39	13	3.61	
	한식조리기능사	120	33.33	63	17.50	57	15.83	
	중식조리기능사	109	30.28	57	15.83	52	14.44	
	제빵조리기능사	274	76.11	171	47.50	103	28.01	
	제과 기능사	186	51.67	115	31.94	71	19.72	
	일식조리기능사	100	27.78	59	16.39	41	11.39	
	양식조리기능사	112	31.11	62	17.22	50	13.89	
	복어조리기능사	26	7.22	11	3.06	15	4.17	
	한복산업기사	22	6.11	7	1.94	15	4.17	
	한복기능사	26	7.22	12	3.33	14	3.89	
	편수(수편물)기능사	13	3.61	10	2.78	3	0.83	
	편물(기계편물)기능사	33	9.17	13	2.78	23	6.39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83	23.06	36	10.0	119	33.06	
	양복기능사	22	6.11	7	1.94	15	4.17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23	6.39	10	2.78	13	3.61	
	섬유디자인산업기사	20	5.56	13	3.61	7	1.94	
	피부미용사	163	45.28	123	34.17	40	11.11	
	4. 취득 자격증과 대학진학과의 관계	대학진학 도움	324	90.00	194	53.89	130	36.11
대학진학에 도움 안됨		32	8.89	12	13.33	20	5.56	
5.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선택의견(신설/개편 후)	특성화 고교 선택	231	64.17	133	36.94	72	20.00	
	인문계 고교 선택	123	34.17	98	27.22	51	14.17	
6. 가사계 실업계고교 개설 희망 학과 (1 또는 2 순위)	조리과	1순위	139	38.61	53	14.72	86	43.89
		2순위	79	21.94	47	13.06	32	8.89
	관광과	1순위	49	13.61	86	43.89	30	8.33
		2순위	57	15.83	21	5.83	36	10.00
	미용과	1순위	66	18.33	58	16.11	8	2.22
		2순위	85	23.61	65	18.06	20	5.56
	의상과	1순위	103	28.61	78	21.67	25	6.94
		2순위	98	27.22	60	16.67	38	10.56

먼저, 중학교 졸업 후 진학 예정 고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 고교

에 약 67%가 진학할 예정이며, 인문계는 여학생(전체 여학생의 64%)보다는 남학생(전체 남학생의

72%)이, 실업계는 남학생(전체 남학생의 28%)보다는 여학생(전체 여학생의 32%)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남 지역에 전문 기능인력 양성의 대안으로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된 고교를 설립하거나 단계적으로 체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부분(93%)이 찬성하였다. 전체 남학생 중 86%, 전체 여학생 중 92%가 특성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여학생의 반응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사·실업계고교에 대한 정보의 양과 기능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교육을 통해 배출된 기능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 정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리, 피부미용, 및 패션디자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특히 조리 분야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조리나 피부미용, 디자인 분야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격증 정보의 인식 수준은 거의 비슷했는데 남·여학생 모두 가사관련 직업군의 자격 정보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과 대학 진학(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포함)의 관련성에 질문에서 약 90%의 조사대상자가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남학생(전체 남학생의 86%)보다는 여학생 대부분(전체 여학생의 92%)이 가사·실업계 고교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대학 진학에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최근 실업 고교의 대학 진학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해준다.

특성화 고교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기존 여자상업계열 고교를 단계적 가사계열로 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경우(전남지역에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가 만들어진다면)를 가정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선택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1(진학 예정 고교)에 대한 응답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인문계보다는 특성화된 가사계열 실업계 고교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약 64%로 나타나 특성화 가사·실업고교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밝히고 있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전체 여학생의 63%와 전체 남학생의 66%가 각각 특성화 고교를 선택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가사·실업계열 특성화로의 체제개편의 방안이 전남 실업교육 진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자 할 때만 들어지기 원하는 학과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리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의상과, 미용과, 관광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학생은 관광과가 가장 높고, 의상과와 미용과, 조리과의 순서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조리과를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관광과, 의상과, 미용과의 순으로 신설 희망 학과를 밝히고 있다. 대체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조리과와 관광과, 미용과, 의상과 등의 학과 요구는 기존 특성화 고교의 학과 구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3. 체제 개편 모델(안)

기존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들의 비교를 통한 체제 개편 및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전남지역의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 체제 개편에 대한 잠재 진학 대상자의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가사·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 및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제 개편을 크게 체제개편의 단계와 내실화 방안, 진로개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표 4 참조).

첫째, 체제개편은 지역 학생들의 선호와 지역 경제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이 바람직하며 다음 세 단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 <1단계>는 특성화로의 전환이 가능한 실업 고교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역별, 계열별 고교의 편중 배치지역을 선별하고 특성화를 희망하는 실업 고교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단계>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체제개편의 대상이 될 실업 고교 1개를 선정한다. 현재 여자고등학교로서 가사계열 특별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대도시 인접지역으로 여성인력자원유입의 가능한 Y(가칭)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선정은 전남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체제개편모델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Y(가칭)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가사·실업계 고교가 부재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침체된 낮은 실업계 진학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2001년 가사계열 전공학과를 신설하여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가장 적절한 대상 학교로 평가된다. <3단계>는 구체

〈표 4〉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 체제개편모델(안)

체제개편모델	관련 대책	세부 추진 방안
체제개편 개편	(1단계)특성화 가능한 고교 조사	-지역별, 계열별 편중 배치 지역 선정 -희망 고교의 실태 조사
	(2단계)체제개편 대상 고교 선정	-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적 여건 고려 -여성자원인력 유입 동향 파악 -기존 여자상업실업고교 유리(전남지역) -특성화 고교 신설보다는 체제 전환 유도
	(3단계)세부추진계획 수립	-학교명 변경:(가칭)전남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모집방식:남녀공학의 총정원제 -학과운영방식:(1학년)진로탐색과정 (2학년)전공선택(심화)과정
	(4단계)년도별 체제운영 계획	-년도별 학과 신설계획 -신입생 모집계획안 등
내실화 방안	전문교사 확보 대책	-산학겸임교사 활용 -부전공연수 활용 예)지역대학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가정과 교사 활용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대책	-기보유 실습실 활용방안 모색 -학과 전공별 최첨단 실습실 확충 방안
진로개발/취업 전망	취업·창업 개발	-소자본 SOHO 창업 -소규모 전문점 창업
	대학 진학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진학 -4년제 종합대학 관련학과 진학 및 편입

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명'은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를 나타낼 수 있는 있도록 (가칭) '전남생활과학고등학교' 또는 적절한 명칭으로 개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정 및 가사계열 전공의 대학이 대부분 가정대학에서 생활과학대학으로 단과대학의 명칭을 개편하는 추세와 연결되고, 전공교육이 동일계열의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학생들의 의견과도 관련된다. '학생 모집방식'은 남녀 대상의 총 정원제로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요구 조사에서 여학생 못지 않게 남학생의 가사·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관심도 높기 때문이며, 남녀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남녀평등교육의 이념에 따라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의 진학 기회를 성별의 구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 전공학과는 기존에 신설된 피부미용과에 이어 조리과학과를 신설하여 2개 학과를 운영하며, 1학년 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따라 진로탐색과정으로 운영하고 2학년은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학과별로 전공과정을 두어 전공코스제로 운영하는 것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피부미용

과 2학년 세부전공은: '피부관리전공'과 '헤어디자인전공'으로, 조리과학과 2학년의 세부전공은 '서양조리전공'과 '전통조리전공'으로 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연도별 학과 신설 및 신입생 모집 계획안 등의 체제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체제개편의 각 단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교육의 질 제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내실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교사 확보 대책>에 관한 것이다. Y(가칭)여자상업고등학교와 같은 개편 학교가 선정되면 개편 1차 년도에는 '산학겸임교사'를 적극 활용하거나 '부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향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주축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지역대학이 전문교사 확보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대학의 사회(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가사계열(피부미용 240시간) 부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거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 및 가정'과의 통합으로 남아도는 '가정과 교사'의 부전공 연수의 추진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부/의상/식품/디자인 분야의 관련 자격증⁴⁾을 소지한 교사들의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교사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대책>이다. 단기적인 한정된 지원이나 예산제약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보유 실습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구상되어야 한다. Y(가칭)여자상업고등학교를 3개 학과(피부미용과, 조리과학과, 생활정보디자인과)로 개편할 때 기보유 실습실을 학과별 관련 실습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부미용과는 피부미용실(1실)과 헤어미용실(1실)을, 조리과학과는 가사실(1실), 제과제빵실(1실), 과학실(1실)을, 생활정보디자인과는 상업디자인실(1실) 및 멀티미디어실(1실)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보유 실습실의 활용방안이 모색된 후, 실습실 및 실험실습실기자재 기준에 의거하여 학과의 전공별 최첨단 실습실 1-2개를 갖추는 방안과 관련 기자재 확보 방안이 마련 마련되어야 한다.⁵⁾

셋째, 실업교육에서 체제개편의 성공여부는 진로개발 및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달려있다. 산업기반이 미약한 전남지역의 경제여건에서 특성화 고교의 전공학과는 기존의 틈새시장에서 '소자본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창업이나 전문점 창업 및 취업'에 유망한 직종과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자본, 소규모 창업은 이미 기존의 시장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전문화된 가사계열 관련 직업군의 발달은 고급유휴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에서 유리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사·실업계 고교의 세부 전공학과는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진학(2+2 연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이러한 인력을 수용하기를 희망하는 2년제 전문대학이 많으며 4년제 종합대학에서의 편입 체제가 점점 인정되고 있으므로 진학 전망은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로의 체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실업교육의 효과적인 체제개편의 기초 모델로써 특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 가사계열 특성화 추진의 배경을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전국의 가사·실업고교의 실태를 현장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고교 진학에 관한 정보 요구가 높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 고교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의 체제개편모델(안)이 제시되었다. 각 연구 내용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계열 실업고교의 특성화는 교육인적자원의 실업계 육성대책(2000)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자원 연구(2001)와 전남 교육청의 실업교육 발전 계획(2000) 등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실업교육의 육성을 위해 지향하는 운영 체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남 실업교육의 문제를 학생자원 측면과 실업계 고교 내부요인, 교원 및 교육체제와 교육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최영표 외, 2001)로부터 전남 지역의 실업교육에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대안의 하나로 특성화 고교의 체제 개편이 적극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업교육 육성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부합되며 전남의 실업교육 진흥의 대안으로 제안된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을 가사계열의 실업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할 만하다. 생활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여성 기능인력의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진학(또는 선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사·실업계열에 대한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 및 전환은 시기적절하다. 다행히 전남 교육청의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추진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

4) 피부미용 영역의 관련 자격증 : 피부미용사

의상 영역의 관련 자격증 : 한복산업기사, 한복기능사, 편물(수편물/기계편물)기능사, 양복기능사
식품 영역의 관련 자격증 : 조주사, 조리기능사(한식/일식/중식/제빵/제과/양식/복어)

디자인 영역의 관련 자격증 :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등

5) 울산생활과학고교의 2001년 기자재 확충 방안 자료는 전남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가사·실업계 고교의 설립 및 전환과 관련하여 전공학과별 기자재 확보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로 체제 개편 및 전환을 위한 기초 모델(안)을 정립하는 연구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를 운영하거나 특성화로의 체제 개편을 희망하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몇몇 가사·실업계 고교를 비교해 본 결과, 특성화 추진에 따른 학교측과 학생들의 반응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전남지역에서는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가 설립되거나 체제개편에 따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성화 고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남지역에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로의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실제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용된다.

셋째, 전남지역의 고교 진학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 그들은 가사·실업계열의 특성화 체제 개편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특성화 체제가 운영되는 실업계 고교가 생긴다면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남지역에서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교가 운영되는 경우 어느 정도 호의적인 반응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특성화 체제에 따른 긍정적 반응은 고교 진학 및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무엇보다 전남의 실업교육 부흥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성화 고교의 학과 요구는 기존 특성화 고교의 학과 구성과 비슷하여 선호 학과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전남지역 산업의 수요와 발전방향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기관으로써 차별화된 가사계열 특성화 고교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선호가 반영되는 공통 학과를 구성하되 각 학과의 전공 영역은 지역의 산업환경과 생활문화컨텐츠의 특성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분야들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세부 전공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뒤이어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발전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사·실업계 특성화 체제개편모델(안)의 기본 틀을 단계적으로 제안하였다. 체제개편 및 전환을 위한 기본모델(안)은 크게 운영체제개편 단계와 내실화 방안, 그리고 취업 및 대학진학의 진로 개발로 구성하고 각각 세부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체제개편모델(안)은 실제 전남지역에서 특성화 고교가 설립(신설 및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능한 실업고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이후 체제개편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내용의 결과 및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다소 개략적인 체제개편 방향만을 서술하고 있다. 추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체제개편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체제개편모델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특성화 고교 대상의 체제개편 및 전환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여 체제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에 어렵다. 기존 특성화 고교의 취업률 비교와 졸업 후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제 효과의 조사 분석이 미흡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한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추진 성과 분석과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사관련 직업군이 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전문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추산 약 2만명 이상의 관광 및 문화산업 인력양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 및 문화산업 분야와의 연계는 새로운 남도형 직업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가사·실업계열 특성화에 따른 진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적용 사례와 직업 정보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사·실업계 특성화 체제개편모델(안)을 제안함으로써 전남의 지역적 산업환경에 적합한 특성화의 체제개편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남 지역에서 가사·실업계 특성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며 나아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범적인 체제개편이 실제 추진될 때 전남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본 연구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강성원·옥준필(2000),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Ⅱ). 서울:대한교과서.
-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 신익현·김기홍·옥준필(2001).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추진 지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실업교육발전위원회(2001).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적 방안 모색.
- 전남 교육청(1998). 전남교육발전계획(2차).
- 전남 교육청(1996). 전남교육통계 연보.
- 전남 교육청(1997). 전남교육통계 연보.
- 전남 교육청(1999). 전남교육통계 연보.
- 전남 교육청(2000). 전남교육통계 연보.
- 전남 교육청(2000). 전남교육청 내부자료.
- 전남 교육청(2001). 전남교육청 내부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
- 진미석(1999). 실업계 여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영표 외(2001). 전라남도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방안 연구. 전라남도 교육청.